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5. 1. 17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미 주

- 美, 「푸틴」 대통령에 '美본토 폭발물 테러시도 중단' 강력 경고
 - 1.14 언론은 「바이든」 행정부가 작년 러시아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(GRU)이 美 본토에 대한 폭발물 테러를 준비 중이던 동향을 파악하고 「푸틴」 대통령 측에 이런 책동을 중단토록 강력히 경고했었다고 보도
 - ※ 언론은 러시아군의 테러 계획은 안마기 등 일상 제품에 폭발물을 넣어 항공화물로 운송하는 방식으로, 작년 독일·영국 등에서 발생한 화물화재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부언
- 美 트럼프 팀, 멕시코 마약카르텔 테러단체 지정 논의
 - 1.9 언론은 이달 취임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 측이 지난 1기 행정부에서 시도했던 '멕시코 마약 카르텔'을 테러단체로 지정하는 방안을 再 논의 중이라고 보도
 - ※ 2019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멕시코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멕시코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보류
- 美, 시리아 새 집권세력 테러단체 지정 유지(뉴시스)
 - 1.9 언론은 조 바이든 美 대통령이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무장단체(하야트 타흐리르 알삼) 시리아의 과도 집권 세력인 HTS가 알카에다와 완전히 분리됐다는 확증이 없고 내부에 지하드가 포함된 점이 우려된다고 하며 HTS의 테러단체 지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보도
 - ※ 다만, 美 재무부는 시리아 재건을 위해 일부 제재를 한시적으로 완화했다고 부언

유럽

- 러, 언론사까지 테러조직 지정
 - 1.12 언론은 러시아 연방보안국(FSB)이 러시아를 분열시키려고 하는 단체와 연계된 혐의로 언론사 '코미데이리'를 테러조직으로 지정했다고 보도했으며 언론사가 同 명단에 오른 것은 러시아에서 처음이라고 부언
 - ※ 이는 작년 11월 러시아 법원이 테러단체로 지정한 포스트 러시아 자유국가 포럼(FNRF)의 구조적 분파라고 판단한 조치로 코미데이리는 텔레그램을 통해 FNRF와의 연관설을 부인

아 · 태평양

○ 韓 금융위, 테러 관련자 법인도 금융 거래 제한

- 1.14 금융위원회는 테러 관련자 본인뿐만 아니라 그가 직·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 거래나 재산권 처분을 제한할 예정이며, 同 내용으로 테러자금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
- ※ 언론은 현행 법령은 테러 관련자 본인에 대해서만 거래를 제한할 수 있었다고 부언

중 동

○ 美·佛·獨, 시리아 군대 내 외국 지하디스트에 경고

↑ 하야트 타흐리르 알삼

- 1.11 언론은 美·佛·獨 특사가 시리아의 새로운 이슬람 통치자(HTS)에게 외국의 지하디스트들을 軍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은 안보상 우려가 있으며 대외적인 평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보도
- ※ 美, 유럽, 이집트 등은 외국인 전투원들을 시리아 軍 고위직에 임명하는 것은 국제적 지하디스트들에게 격려의 신호를 보낼 수 있다며 임명에 반대

○ 시리아, 신사 겨냥한 ISIS 폭탄테러 시도 저지

- 1.12 언론은 시리아 정보기관이 다마스쿠스 교외에 있는 시아파 신사를 표적으로 삼은 폭탄테러 시도를 저지하였으며, 피의자 4명을 체포하고 소총·폭발장치·수류탄 등도 압수하였다고 보도
- ※ ISIS는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장소를 겨냥한 테러를 지속 감행 중

아프리카

○ 아프리카 차드, 대통령실 습격한 테러범 사살 등 진압

- 1.9 언론은 카메룬·니제르 등에서 활동하는 테러단체 보코하람이 아프리카 차드 수도에 있는 대통령실을 습격했으나, 차드軍이 즉각 대응하여 테러리스트 18명을 사살하는 등 신속히 사태를 진압하였다고 보도
- ※ 차드 외무부 장관, “同 사건의 범행동기 등 자세한 전말은 추후 발표하겠다”고 언급

프랑스, 파리 샤를리에브도誌 총기난사 테러

- '15.1.7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에서 훈련받은 「쿠아시」 형제가 소총·로켓발사기를 소지하고 파리 샤를리에브도* 本社에 난입
 - * '70년부터 종교·정치 등에 대해 풍자한 시사 주간지로 '06년부터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희화화로 이슬람권의 강한 반발 야기
 - 알제리系 이민자인 테러범들은 무함마드 풍자 만화 게재에
 - ↳ 프랑스 최악의 총기살해 사건으로 평가
 - 대한 응징을 주장하며 총기난사, 편집장·경찰 등 12명 살해
 - '20년에도 샤를리에브도社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언론인 2명이 다치고, 수업 중 무함마드 만평을 소개한 교사를 살해하는 등 테러 지속
 - 한편, 프랑스는 同 사건을 계기로 정보수사기관이 판사 승인없이 테러 용의자 전화·이메일 등 정보수집이 가능하도록 對테러 관련法 개정
- ⇒ 무함마드 풍자만화 再게재시 테러단체·이슬람 극단주의자 등에 의한 테러 선동 및 감행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, 관련 동향 주시



테러 단체

<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 >

- (영문 / 별칭) Al-Qaida in the Arabian Peninsula
- (결성/목표) '09.1 '예멘 알카에다'가 '사우디 알카에다'와 통합하여 아라비아반도와 중동內에서 이슬람 신정국가 건설을 목표로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UN('10.1), 미국('10.1), 캐나다('10.12) 등
- (활동지역 / 연계세력) 예멘, 사우디아라비아
- (수법) 예멘 軍·警 대상 공격 및 다양한 형태의 폭발물 (프린터, 속옷, 신체內 은닉 등)을 이용한 주요 인사 암살, 항공기 폭탄테러 등
- (특징) 반서방 글로벌 테러에 가장 적극적·공세적, 알카에다 지부 중 가장 위협적인 단체로 평가

